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 송호신문 창窓

발행인 이기평
주간교수 허소영 | 편집장 김미지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 2호



◇늦가을 쌀쌀한 운동장에 선수들이 축구공처럼 둥글게 모여있다. 곧 굳은 각오를 축구공에 얹어 멀리 날릴 것이다.

WOW 브랜드 전문인력양성의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지혜와 가치의 새 물결(WOW)** 창조를,
그리고 **감동(WOW!)**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하는 대학

■ 2014학년도 송호대학교 신입생 모집

◆ 인문사회계열 | 관광(대명)리조트과, 사회복지과(주/야), 유아교육과(3년제)
◆ 자연계열 | 뷰티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
◆ 보건계열 | 보건행정과, 간호과(3년제), 방사선과(3년제), 임상병리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 체육계열 | 스포츠레저과(스키스노보드전공/레저스포츠전공)

정시1차 모집 : 2013.12.24(화) ~ 2014.01.17(토) / 정시2차 모집 : 2013.2.12(수) ~ 2014.02.28(금)
입학상담 : 033-340-1041~2 입학홈페이지 : http://iphak.songho.ac.kr

송호대학교 SONGHO COLLEGE




◇지난 10월31일 발족한 우리대학 자원봉사단이 학교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봉사를 통해 지역사랑 실천한다"

## '송호대학교 자원봉사단' 발족…봉사활동 제도화 추진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할 것"

우리대학이 지난 10월 31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단은 "사랑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의 대학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의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직원 및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지원센터장인 이광모 교수가 봉사 단장을 맡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교내 행사지원, 횡성 관내 환경 정화, 독거노인 연탄전달, 사랑의 집짓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재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외부봉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봉사활동의 제도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대학의 역량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위상 정립에 노력 중이다.

총장은 " 그동안 교직원은 학교 교육, 행정에 힘쓰고, 학생은 공부하고 모두 자기 일에 힘쓰느라 봉사활동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이제는 봉사단을 만들어 봉사를 시작하니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봉사를 통해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과 화합하고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원봉사단은 교직원과 학생을 합해 약 35명이 참가하였으며, 발대식을 마치고 2개의 조로 나누어 남산리 마을 주변과 전천 수변공원 및 산책로의 환경정화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사회봉사단 창립 기념 '교직원 친선 체육대회'를 가져 교직원들이 단합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김미지 기자




◇지난 11월4일 실시한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하는 학우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국진 회장 후보와 김푸름 부회장 후보.

#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 없어

## 투표인원 2/3 이상 득표 실패

### 재선거 실시했지만 투표율 부족

제 13대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1월 4일 송호관 1층 로비에서 실시됐지만 득표율 부족으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11일 다시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투표율 저조로 낙선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학생회장 후보자(스포츠레저1 정국진), 부회장 후보자(스포츠레저1 김푸름)는 편의점 입점 방안, 도서관 프린트기/복사기 무료이용 등 총 7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규정은 투표인원의 2/3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데 개표결과 투표인원 385명 중 찬성 232표(득표율 60.3%), 반대 114표, 무효 39표로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재선거를 공지했으나 새로운 입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기존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1일 재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투표율이 저조한 바람에 당선되지 못했다. 이처럼 두차례 선거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2014년 우리학교 학생회는 대의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혜진·서다정 기자

호텔외식조리과

# Party수업 눈길

우리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서 지난 10월 30일 점심 '1학년 레스토랑 현장실무 강화 및 Party수업'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웰빙관에서 이기평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100여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Party수업은 산학일체형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능력을 목적으로 푸드코디네이션실무, 고급서양조리실습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메뉴는 '횡성한우를 이용한 안심스테이크와 사과천트니, 올리브데판냐드, 씨겨자소스사와크림을 올린 고구마, 말린토마토와 구운야채'를 선보여 교직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수업에 앞서 이기평 총장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철저한 현장실무 위주 교육 교직원들로부터 극찬 받아

호텔외식조리과는 'Party수업'을 가짐으로써 향후 실제 외식조리업장에 나갈 학생들의 전공분야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호텔외식조리과 정삼식 교수는"현장실무 위주의 수업을 통해 좀 더 빠른 적응력과 현장투입 시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Party수업을 가졌으며 "반복적 실습은 물론 학생이 직접 레시피작성, 메뉴선정, 조리와 정리까지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으로 수강 후 호텔, 전문레스토랑에 취업과 창업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유동균 기자

### 보람있는 방학 보내세요

'송호대신문 창'은 방학기간에는 발행하지 않고 내년 3월 개학에 맞춰 발행할 예정입니다. 알차고 보람있는 방학 보내세요.

—송호대신문사 기자 일동—

# 웰빙을 넘어 웰다잉으로…
(Well-being) (Well-dying)

##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삶과 죽음의 이해'주제로 특강



◇간호과 정혜영 교수가 특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1월12일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한림대학교 생사(生死)학 연구소 소장 오진탁교수가 '보건의료인을 위한 삶과 죽음의 이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

강의 대상은 우리학교 보건행정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1,2학년 학생들이었다. 생사학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죽음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살예방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동영상 30여 편을 제공한다. 수강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 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자살 시도를 하였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살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수강생은 자살예방 동영상을 보며 많이 힘이 되었으며, 자신의 인터뷰영상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진탁 교수는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으로'라는 말을 설명하였다. 그 뜻은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 라는 뜻이다. 죽음과 20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음은 사건, 사고 등으로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건강을 중시하고 자살 예방을 하기위해 20대에게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즘 2030세대에서 자살 시도율은 2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오진탁 교수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자살을 시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였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생소 할 수 있었지만, 보건계열 학생들이 누구보다 죽음에 대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알찬 강의였다고 말했다.

서다정·박혜진 기자


◇최연임(임상병리과학과장)교수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손씻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전개
### 임상병리과·간호학과 함께 진행

우리학교 임상병리과와 간호학과에서는 11월 25일 진선미관 앞에서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손씻기 전후의 손바닥 세균배양검사(hand culture)를 통하여 재학생들의 손 오염 정도를 비교조사하고, 손을 통해 옮겨지는 질환에 대해 알려주어 손씻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병리 및 간호학과 학생들은 그동안 습득한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체험의 기회가 되었으며, 참여학생들에게는 임상병리검사를 이해하고 건강과 위생에 대해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유동균 기자



◇지난 11월14일 열린 유아교육과 제11회 '한울제'.

## 캠퍼스에 아이들 웃음소리 넘쳤다
### 유아교육과 '한울제' 영유아 500여명 초대

유아교육과가 지난 14일 제11회 '한울제'를 개최했다. '한울제'의 '한울'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한 울타리의 정신을 가지고 화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초청해 준비한 공연과 교구를 보여주며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전 교사로서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선포식도 진행했다. 유아교육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조희정 교수는 "이번 한울제는 학생들과의 화합과 저력을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였고, 선포식을 통해 학과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한울제를 통해 선배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지난 11월20일 열린 사회복지인의 밤 행사.

## 사회복지사 마음가짐 새롭게 가져
### 사회복지과, 제1회 사회복지사 선서식 거행

사회복지과가 지난 11월20일 120여명의 재학생과 사회복지기관장,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가졌다. 이광모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평총장의 축사, 강원도장애인시설협회장과 졸업동문(백명화, 2기졸업생)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날 가장 의미있는 순서는 링타이 착용 및 촛불의식, 사회복지사선서식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낭독으로 학생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한편 2부 이음의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산학협력 멘토링 협약식을 가져 학생들의 취업과 실습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공유하였다. 사은회와 졸업생 환송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소민 기자


◇지난 11월2일 열린 방사선과 학술제에서 촛불 점화식을 하고 있다.

## 논문발표 등 멋진 지성 뽐내다
### 방사선과 학술제 '송방제'

방사선과가 지난 2일 학술제인 '송방제'를 개최했다. '송방제'는 방사선과 학우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큰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발판을 만들어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유병헌 팀장의 특강이 있었다. 2부에서는 총장, 내빈, 동문회장의 축사와 학과장 격려사 및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3학년들의 렌트겐 선서식과 1, 2학년들의 M.R.I 및 방사선에 관련된 논문 발표,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방사선과 학과장인 신귀순 교수는 격려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학년 과대표 김희진 학생은 "송방제를 준비하는 동안 학우들이 힘든 내색 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어 고맙고 미안하다."며 준비한 것에 비해 결과가 좋아 뿌듯하고 선배들 논문발표를 보며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 설렘으로 미래의 송호인을 기다립니다!

## 김낙상 입학처장과의 대화

해마다 이맘때면 제일 바쁜 분이 계시다. 바로 입학홍보처장님이다. 입학홍보처는 우리 대학에 신입생을 유치하고, 대외적인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캠퍼스를 스치고 간 자리, 푸릇푸릇 새순이 돋듯 새내기 신입생들이 다시 캠퍼스를 채울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신입생 맞이로 바쁜 입학홍보처장님을 만나, 송호인이 될 신입생들에게 미리 전하는 따뜻한 응원과 기대의 말을 들어본다.



◇송호대학이 학생들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강조한 입학처장.



◇김낙상 입학처장이 방과후 자격시험을 위한 그룹스터디를 지도하고 있다.

### 송호는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한다

송호대학교는 정의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 이라면 송호대학이라는 배움터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호대학교의 사명은 학생이 지금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생들 각자가 가진 삶의 희망, 기대,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북돋아주어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호대학교는 학생들의 유능함이 아니라 잠재력을 믿고 투자합니다. 생활이나 학습능력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송호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1:1 맞춤형 상담과 필요할 경우, 소규모 집단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학생들의 열의와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연구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연구실의 문턱은 어느 대학보다 낮고 넓어 학생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 또한 자랑하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는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매월 장학금을 적립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천사 장학금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소박한 마음을 담은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호대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꿈의 대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되는 순간 우리 교수님들에게 여러분은 최고의 학생이 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 혹은 '이미 늦었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송호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송호의 비젼과 경험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의 20~30% 장학금 혜택**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 발휘하게 하는 게 사명**
**"송호대학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보람 느낄 것"**

우리대학은 2000년 300명의 정원으로 소규모 대학으로 개교하여 2008년에는 17개학과 610명의 신입생모집이 지난 10여 년간 2배 정도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학령인구 감소로 자율경쟁과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 환경은 송호 뿐 아니라 많은 대학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송호대학은 위기를 기회삼아 내실있는 이론교육과 산업체 현장 전문가가 함께 채우는 교육시스템(3+1)으로 브랜드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대학은 학생 1000명의 작은 대학입니다. 또 우리 학교를 선택했던 여러분의 선배들 또한 처음부터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대학이 우리의 3-4배가 넘는 규모 대학과 그 학생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대학의 저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송호에서 시작하세요.

송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춤으로써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는 학생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잠재능력을 깨우는 감동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은 미래의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산업기술 전문인으로 성장 할 것입니다.

송호대학교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명예는 아닐 수 있어도, 최고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송호의 구성원 전원은 한결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송호의 특별한 기회

송호대학교에서는 2014년 신입생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장학금을 보면 신입생특별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이 있으며, 신입생들에게는 보건계열과는 등록금의 20%(보건행정과는 제외), 타 학과들은 등록금의 30%의 장학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신입생부터는 보건계열과가 신축된 행복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건물과 훨씬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관의 신축을 통해 보건계열학과는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않을 학업 환경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대학교에서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교육제도는 입학에서 취업까지 학생 만족을 위한 3+1제도 전문상담시스템, 산업체 취업연계 3+1 맞춤형 교육시스템, 계속교육을 위한 학사학위제(4년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며, 학업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송호대학교는 작지만 내실있는 대학으로써 학생들의 수요자 중심으로 21세기의 명문대학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를 송호의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송호의 봄은 청명한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런 자연환경에서 거침없이 성장할 여러분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김미지 기자

◇송호대학교 장학금 현황 및 지급원칙

| 신입생 특별 장학 | 국가교내교외 장학 | 기타사항 |
|---|---|---|
| ▶전체수석차석장학<br>▶학과수석장학성적우수장학<br>▶장애학생장학새터민장학<br>▶어학우수장학<br>▶학과장추천장학<br>▶다문화가정장학<br>▶체육우수장학 외 다수 | ▶국가장학: 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보훈장학<br>▶교내장학: 성적우수장학, 면학장학, 근로장학, 가족장학, 자격증 취득장학 외 다수<br>▶교외장학: "교직원천사회"장학, 농촌희망장학, 농협중앙회장학, 기초대상수급장학, 횡성군장학, 로타랙트장학,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 삼공장학, 상송장학, 선덕의료재단(대성병원)장학 등 | ▶모든 신입생 장학금은 국가장학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br>▶모든 신입생 교내장학 혜택은 수업료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br>▶신입특별장학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br>▶동점자 발생에 따른 장학수여 대상자는 연소자를 우선임. |
| ※상기 장학내역은 대학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모든 장학혜택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장학대상자 중 2종이상 수혜 대상일 경우 상위금액 1종의 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br>※자세한 내용은 송호대학교 입학처(http://iphak.songho.ac.kr)→대학소개→장학(대출)안내 | | |

#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린다

## 도약을 꿈꾸는 송호대 축구부



전 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축구선수 지동원(선더랜드, 영국). 그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우리대학 운동장은 지금 제 2의 지동원을 꿈꾸며 쉼 없이 훈련을 하는 후배들이 채우고 있다. 창단된 지 5년차에 불과한 송호대 축구부가 2011년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 2012년, 2013년 전국 추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준우승을 이뤄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지만, 강의실에서 좀처럼 마주치기 어려운 축구선수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 축구부원들과 감독님을 만나 이들의 축구사랑과 꿈을 들어봤다.

지면이 넉넉치 않아 학생 인터뷰는 박승우(2학년/2013년 주장), 박월드 (1학년/2014년 주장), 최진혁(1학년/ 2014년 부주장)을 중심으로 했다.



박승우(2학년·2013 주장)



박월드(1학년·2014 주장)



최진혁(1학년·2014부주장)

### 박승우 "국가대표가 목표…박지성 선수는 나의 우상"
### 박월드 "J리그 진출하는 게 목표…하성준 감독 존경"
### 최진혁 "2002 월드컵 때부터 시작…기성용 선수가 우상"

**축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박승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특기적성으로 있던 축구반에 선생님의 권유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가 저의 축구의 시작이었죠.

**박월드**: 축구를 하게된 건 아버지 덕분이예요.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축구를 많이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6살 때부터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최진혁**: 아버지가 축구를 하셨기 때문에 축구를 접할 기회가 많아 좋아하게 됐고,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박승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프로팀이나 실업팀을 거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 5~6세 아이들에게 축구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박월드**: 목표는 다른 학생들은 졸업해서 편입을 하고 프로 팀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일본 J리그에 가는 것이 목표에요. 일단 J리그에 가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K리그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꿈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박월드**: 가장 아쉬웠던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 경기는U리그 한양대와의 결승전이요. 제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상대 골키퍼를 태클하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나의 몫까지 더 뛰어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인내심을 배웠어요.

**박승우**: 올해 8월 양구에서 1, 2학년 대회가 있었는데 16강 때 중앙대와 시합을 뛰게 되었어요. 당시 중앙대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4명이나 있어서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반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동점골과 넣고 후에 역전골을 넣어 2대1로 이겼어요.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기뻤어요. 역전골의 짜릿함이 아직까지도 느껴져요.

**자신의 우상은 누구인가요?**

**박승우**: 박지성 선수에요. 저와 포지션이 비슷하고 운동장 내에서는 팀 동료한테는 큰 역할을 해주지만 관중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티내지 않고 해주기 때문이에요.

**박월드**: 우리 팀 하성준 감독님이요. 훈련 할 때는 호랑이 같이 무서운 분이시지만, 평소에는 잘 챙겨주시고, 따뜻한 분이시라서 무척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이죠.

**최진혁**: 기성용과 바르셀로나에 세르히오 부스케츠 선수에요. 저와 비슷한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데 경기 조율을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축구란?**

**박승우**: 제게 축구란 특별한 공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의 전부와 프로정신을 가지고 하는 공놀이라고 할 수 있죠.

**박월드**: 축구는 저에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 마다 항상 나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 이다. 'Soccer is my life' 라는 말을 매일 쓰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오로지 축구가 좋아서 한다는 선수들,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할거라는 감독… 처음에는 사실 초콜릿 복근, 멋있는 슈팅만 담게 될 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마친 지금 우리 기자들은 이들의 멋진 겉모습이 아닌 축구에 대한 진지한 열정에 팬이 되었다. 막강 송호 축구! 송호 학우 모두와 함께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박혜진·서다정·김소민기자



## 인터뷰/ 하성준 감독

**우리학교로 오게 된 계기는?**

대구 FC에서 수석코치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이사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오게 됐어요. 2009년 4월에 창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목표**

U리그에서 우승(2011), 준우승(2012, 2013) 모두 해봤지만, 아직 전국체전에 강원도 대표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사실 1, 2학년이 3, 4학년과 겨루기란 힘듭니다. 1, 2학년 대회만 나가다가 저희 1, 2학년 축구부가 두 번째 3, 4학년 경기에 나갔을 때에 8강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 4학년이 출전하는 U리그와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감독님에게 축구란?**

제 인생의 전부죠. 저는 축구밖에 몰라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할 거에요. 제 인생에서 축구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축구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축구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최선을 다해라'에요. 저마다의 목표를 위해 힘든 훈련을 잘 참아줘서 고맙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 세워라

## 특집: "송호인이여, 미래를 잡(job)아라"

"졸업하면 유치원에 취직하고 싶어서 교직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요즘은 자기 소개서를 써보기도 하는데, 가끔 저 혼자 취업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과연 교육기관에 잘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유아교육과 3년 김정은)

"병원 원무과에서 행정사로 근무하려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때라 잘 될지 걱정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앞두고 보니 현실이 막연하고 두렵습니다"(보건행정과 2년, 김명준)

"치위생사 면허 취득을 위해 매일 10시간씩 실기연습과 필기 공부에 전념하고 있어요. 막상 졸업을 앞두니 정든 친구들, 교수님을 떠나는 게 아쉽고, 사회 초년생이 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해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겠지요~"(치위생과 3년, 하선미·이슬기)

총총히 도서관을 향해 올라가던 2,3학년 학우들의 이야기. 졸업에 대한 기대보다 취업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큰 것은 우리학교 학생들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했지만 취업의 문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자. 노력과 성실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런 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송호 학우들을 위한 취업 준비 A to Z를 다뤄본다. 2년 혹은 3년 동안 배운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제대로만 살려내도 취업 문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거기에 용을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는 중요한 한 점,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를 위한 노하우를 담았다.

# '취업준비계획서' 작성해보자

### 취업준비

높은 취업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계획서 작성법을 준비했다. 취업준비계획서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필요하다.**

내가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 정보 없이 취업준비계획을 짜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이며 나중엔 쓸모없는 결과를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회사에 대한 요즘 트렌드와 더불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준비계획서를 짜야한다.

**☞ 취업준비생 비장의 무기는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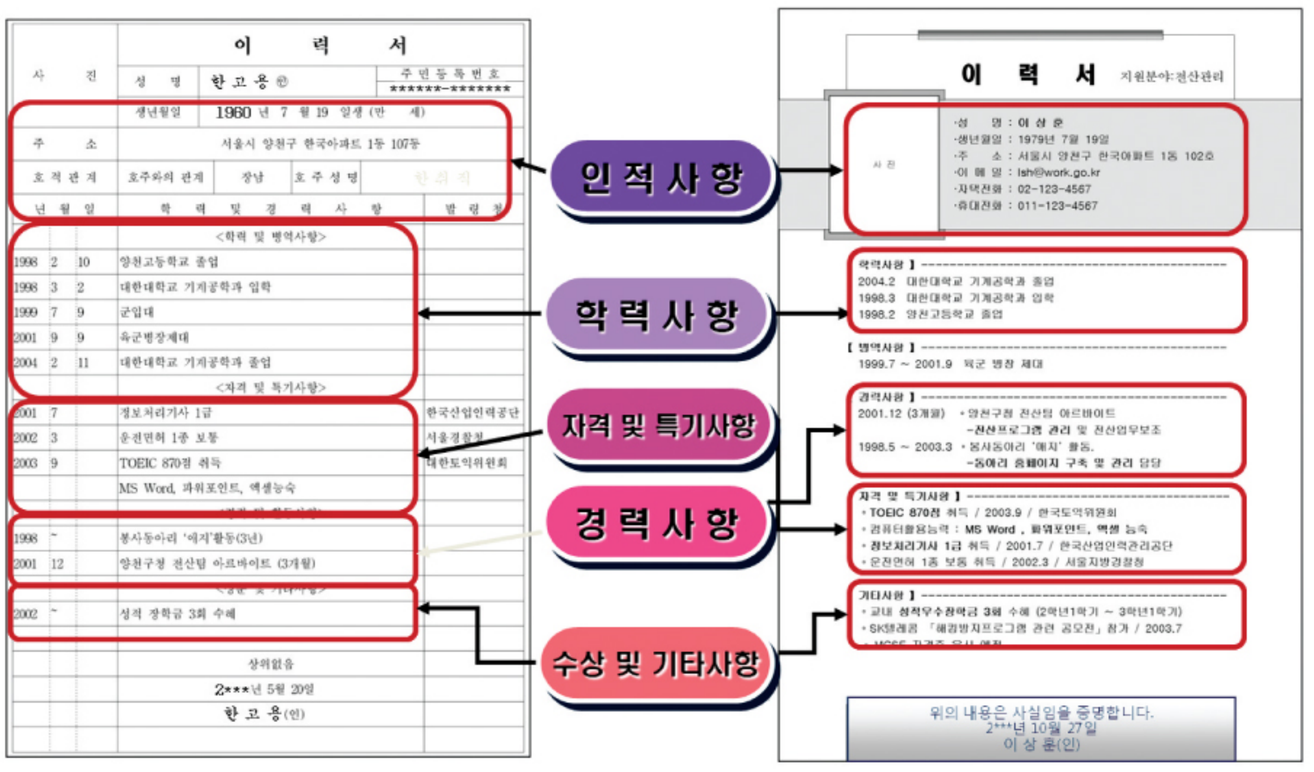
자기소개서 속에서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읽는 매서운 인사담당자의 눈에 쏙 들기 위해서는 꼼꼼함을 보여줘야 한다. 첫 시작을 인사담당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 자신이 생각하는 좌우명이나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 등을 넣어 자신을 톡톡 튀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항상 최근 날짜로 준비해야한다.

**☞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추천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체크하라.**

자격증, 추천서, 공모전 등의 이력들은 회사의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취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해보면 자신이 회사에 대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체크하며 취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해보자.

### 이력서 기본형

☞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력서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양식이다. 다음은 가장 흔한 형태의 이력서이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보자.




##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게 만들어라

### 면접

☞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잘 준비한 송호인이라면 모두 이 순간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바로 면접. 면접이란 낯 면(面)자에 사귈 접(接)자로, 만남을 통해 상대방과 사귄다는 뜻. 그런 의미에서 면접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면접복장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림새를 선호한다.

☞ 면접관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긴장도 문제지만, 지나친 여유나 느긋한 태도도 신뢰를 주지 못해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여성 면접복장 | 남성 면접복장 |
|---|---|
| ● 대체로 검정정장에 흰색 블라우스-스타킹은 살색 또는 커피색-구두도 옷 색상과 유사한 검정색 또는 어두운 색<br>● 정장도 최대한 몸에 맞추어서 입으며 볼륨감을 살짝 들어낸다.<br>● 구두 굽은 5cm이상이 되지 않도록 편한 구두를 착용한다. | ● 대체로 검정색 또는 네이비 컬러의 정장<br>● 넥타이는 너무 얇거나 두껍지도 않아야 하고 로고가 큰 타이는 피한다.<br>● 밸트와 구두는 광택이 나지 않는 차분한 색깔<br>● 양말은 반드시 긴 양말 |



☞ 면접관이 옷차림이나 태도에서 호감을 보였다면 이미 반은 합격한 셈. 이제 송호인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면접관이 당신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대답을 준비해보라. 친구와 같은 질문을 주고 받으며, 서로 보충해야할 부분을 챙겨보자.

**면접질문 Best**

- 대학생활 중 학업 외에 어떤 일에 몰두했는가?
-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단점 극복은?
-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을 때는?
- 최근 감명 깊게 본 기사는?
-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당신의 목표는?
- 당신에게 1억이 생긴다면?
- 사회인과 학생의 차이는?
- 1분 자기스피치를 해보아라

# 스펙보다 스토리 중요

## 자기소개서

최근에는 자기소개서 대신 역량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역량기술서는 단순히 자신이 살아온 내력이나 추억을 기술하기보다(저는 자상한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님 사이에서 2남 1녀 중~), 난관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의 자질과 역량에 초점을 둔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2013.7.23)에서 제시한 인사담당자들의 조언을 정리한 것이다.

**☞오탈자를 꼼꼼히 확인하라**

회사 이름을 잘못 쓰는 지원자가 많다. 컴퓨터로 작성하다보니 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들의 평균 10%는 회사 이름 등을 잘못 써서 탈락한다. 회사 이름 뿐만 아니라 맞춤법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 키워드를 갖고 일관성 있게 말하라.**

인사담당자들이 한 장의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쓰는 시간은 평균 2분 내외.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기 보다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 눈길을 끌도록 하라. 차별화된 제목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되, 허무맹랑하고 말장난 같은 제목은 마이너스!

**☞ 글자수 보다 진정성에 집중하라**

제한된 글자수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지만, 지원할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한 두사례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 원서접수는 최대한 빨리하라**

마감시한을 넘기거나 마지막에 몰려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마감 하루 전에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것.

**☞ 스팩보다 스토리를 써라**

요즘 채용 트랜드는 스팩과 학벌보다 긍정적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중요시 한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자신의 장점을 연결해 지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환학생, 해외 배낭여행, 동아리 회장 등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오히려 작더라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전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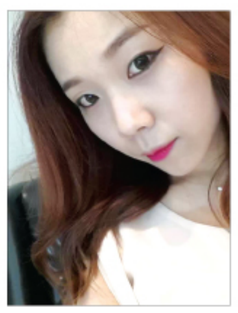
### 송호대 양윤석 취업지원관의 팁

▷구태의연한 형식 탈피.
▷기승전결에 따른 짜임새 있는 문장 구성. 자신의 장점, 강점, 관심 분야, 경력 개발 계획강조.
▷고사성어, 명언 등을 적절히 인용.
▷제목 및 소제목을 적절히 활용.
▷진부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
▷당연한 말은 쓰지 않는다.
▷오탈자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한다.
▷통신 은어를 쓰지 않는다.
▷한자 및 외래어 사용에 주의 한다.

## 인사실무자가 전하는 취업성공 핵심 팁

#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아는 눈 길러야

### 김 소 연 호텔인터불고 원주 메이크업 실장



**기억에 남는 면접생**

좋지 않은 기억이다. 실습생으로 나온 대학생이었는데 면접에 임하는 차림새가 흔히 말하는 떡진 머리에 상의는 블라우스 하의는 고등학교 체육복바지신발은 플랫구두의 모습이었다.

웨딩숍은 주중에는 리허설 촬영, 주말에는 본식에 정신없이 바쁘다. 때문에 주중 하루를 정기휴무로 정해 쉬고 있는데 주말에 휴무를 주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면접생 한명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이다.

**이런 면접 '꽝'**

어느 직장이든 이 질문의 답은 비슷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첫인상이 되는 시간약속이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해도 면접시간에 늦는 것은 마이너스다.

**갖춰야할 소양**

늘 공부하고 연구 분석 하는 노력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유행에 민감한 직업이고 정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의 실력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높이 산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정보력 등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면접 시 중요시 하는 것**

끈기, 성실함, 일에 대한 열의.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느냐만은 뷰티 쪽 일은 겉보기와 달리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직업이다. 겉모습을 보고 뛰어든 사람은 오래 일하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하기 일쑤다.

주말에는 본식스케줄에 맞춰 새벽에 출근하는 날이 많은데 성실하지 못해 지각을 한다거나 무단결근 하게 돼면 신랑·신부가 평생에 한 번 뿐인 예식시간에 맞춰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봉사와 헌신 마인드, 기본 덕목

### 박 재 홍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자기소개서에 꼭 담을 내용**

우선 본인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본다.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자격증이 많다고 해도 본인이 자기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조직생활에서 어려움이 많다. 본인의 성장배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조직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지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인턴, 실습 등의 경험은 사진이 첨부된 설명이 좋다.

**기억에 남는 면접생**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면접생 이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단정한 옷차림과 다소 긴장한 모습, 미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런 면접 '꽝'**

준비가 안된 면접생이다. 자격증이나 실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안된 면접생은 사회복지사로서 미래가 없다. 적극적인 준비와 마음가짐, 다른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소중히 해야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면접 시 중요시 하는 것 .**

사회복지관은 지역 환경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 사례관리와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조직 전문가를 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할 소양**

우선 자신이 일하고 싶은 사회복지분야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자신이 일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취업에 임하면 안된다. 우선적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열정이 가장 필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성을 알아야 한다. 봉사와 헌신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다.

# 면접 대기 중 행동 '보는 눈' 있다

### 임 현 정 서울대효병원 심사과장



**자기소개서, 중점적으로 보는점**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위주로 본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나갈지에 대해 작성하면 좋겠다. 지원했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다른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면서 기관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는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탈락시킨다.

**면접 중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무환경이나 급여가 직업을 선택하는 요소들 중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건계열 분야 일은 근무환경이나 급여는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경력자가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면접관들은 직원을 뽑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돈과 명예보다는 봉사 정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

**면접 시 중요시 하는 것**

인성과 예절을 가장 중요시 한다. 모든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 금방 배우고 잘 할 수 있지만, 인성과 예절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밝은 표정도 중요하다. 보건계열은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들 맞이하면 상대방에게도 기분이 전달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면접관 앞에 보이는 부분만 점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면접을 보기위해 면접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 많은 눈들의 면접이 시작 된 것이다. 면접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대하는 직원, 대기 중 표정 , 대기 중 핸드폰 통화 말투 등 모든 것들이 면접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기업과 학과 접목한 최초 사례 '눈길'

## 학과탐방: 관광(대명)리조트과

산, 바다, 강,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레저스포츠, 쉼과 오락… 우리나라 관광 산업 중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여가 문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리조트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관광(대명)리조트과가 있다. 대명이라는 괄호 속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리조트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이기도 하다. 관광대명리조트과는 기업과 학과를 접목시킨 최초의 학과로 취업률 86.8%를 자랑하고 있다.

관광(대명)리조트과에서는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 졸업 후에는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는지 등 관광(대명)리조트과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다.



대학교육과 산업체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

2학년 2학기에는 대명리조트 현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관광(대명)리조트과란?**

(주)대명레저산업(전국 12개 리조트)과 고용 연계형 협약을 통해 '3+2+1 SD Track'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과는 대학교육과 산업체간의 밀도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관광(대명) 리조트 과는 레저분야에서 브랜드 파워 최고 기업인 '대명 브랜드'를 최초로 학과에 접목시켜, 대명리조트에서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교육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고용 연계형 학과이다.

'3+2+1 SD Track' 이란 3학기 대학과정, 2회 실습과정, 1회 인턴십 과정을 뜻한다. (주)대명레저산업과의 협약을 통해 확실한 취업의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여 높은 취업률이 보장되는 학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산업체로의 취업대상자들에게는 대명리조트와 비슷한 취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과과정운영의 형평성과 균형성의 유지를 통해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대명레저산업의 전국 12개 업장을 비롯하여, 리조트 관련 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스펙을 위한 취득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CS(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로 고객만족을 의미)관리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조주기능사자격증, 서비스경영컨설턴트, 관광 통역 안내사(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국제회의 종사자, 호텔 서비스사, 외식·식음서비스기획사 2급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광(대명) 리조트과 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운다. 리조트에 근무하기 위한 맞춤 교육으로 부대업장에서 고객들과의 접점시점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피분야 이론에 대한 이해와 바리스타 과정의 기초학문을 배우며, 일반적인 관광 현상과 리조트 사업 등 관광산업에 대해 배우고,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회계학습을 통해 리조트 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과 현장중심교육을 기초로 하여 식음료의 구매, 저장, 제조 및 판매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학습한다. 리조트서비스 종사자의 셀프 및 상황대응 리더십 등 고객만족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한다. 국제적인 서비스 매너의 반복적인 학습으로 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교육, 훈련하는 교과목들을 배운다.

2학년 2학기에는 대명리조트 현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한다. 실습장에서 대명리조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자신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고객감동과 만족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해 갈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이덕원 교수(왼쪽 첫번째)와 학생들이 바리스타 실습교육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실습현장에서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

## 대명레저산업의 미래는 우리!!…실습위주 교육

**관광(대명)리조트만의 특수성**

한국 CS표준 교육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한국정보평가원에서 공식지정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6~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중 협약 학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통해 2009년 (주)대명레저산업과 고용 연계형 학과로 개편되었다.

국내최초 고용주문형 학과이며, 관광(대명) 리조트과와 (주)대명 레저 산업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성과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자격증 취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취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덕원 교수는 취업 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과 끈기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인성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안 보이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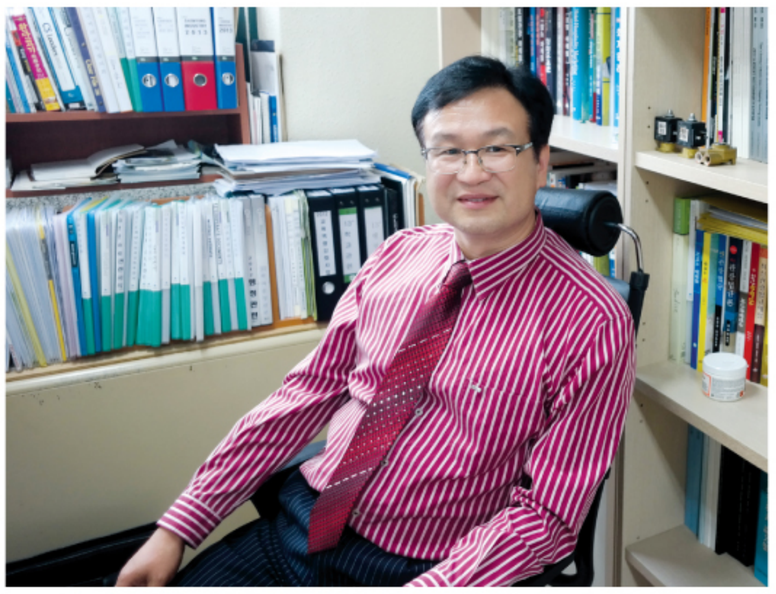
다음으로, "요즘 학생들 대부분이 끈기가 부족한 것 같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가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차이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극복하는 끈기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 등 이러한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까? 생각해보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혜진·서다정 기자



◇바리스타 과정 실습중.



◇관광(대명)리조트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덕원 교수.

# “다시 돌아오지 않는 대학생활 자신을 위해 알차게 보내길”

● 동문탐방 : 김나영 동문

(인천공항 워커힐 F&D사업부 근무)

(호텔외식조리과 2010년 입학)



◇대학원까지 진학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김나영 동문.

우리학교 호텔외식조리과를 졸업한 김나영 동문을 인터뷰 했다. 김나영 선배는 현재 인천공항 워커힐에서 근무 중이라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했다. 질문을 보고 직접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 귀찮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기쁘게 응해주셨다.

**선배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송호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10학번 김나영입니다. 현재는 인천공항 워커힐 F&D사업부 팀에 소속되어 한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대에 어떻게 입학하게 되셨나요?**

송호대는 학교를 알아보는 도중 입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송호대 조리과가 작지만 훌륭한 교수님과 1인 1조리기구 사용이 가능한 자체교육시설을 활용한 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에게 송호대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러울 때, 제가 가야할 길을 알려준 곳입니다. 입학하고 초반에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적응하다보니 내가 하는 만큼 교수님과 학교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 송호대 선택한 것은 실무중심 실습교육 때문
> 내가 하는 만큼 교수님과 학교에서 지원해줘
> 대학시절 시간 효율적으로 못 보낸 게 아쉬움

**대학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호텔외식조리학과가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야간에 기초어학능력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교재비는 전액 학교 지원으로 매주 2번씩 기초회화수업을 받았는데 성적우수자는 취업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4주동안 싱가포르 어학연수인데 개인경비를 제외한 항공료, 교육경비 등을 100%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운좋게도 가게 되어 원어민에게 어학연수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일하는 워커힐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환승호텔(90실)과 20·30대를 위한 ‘에어까페’ 등 9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골프장 클럽하우스 6곳과 코엑스 내 직영 레스토랑 2곳을 운영 중인데,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인력지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다소 먼 강원도 홍천으로 갔었는데 그 곳에 갈 때 송호대 다닐 적도 많이 생각나고, 학교 가는 길 같아서 기분이 사뭇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일하는 곳이 첫 실습지이자 첫 직장인데, 홍천에 있는 골프장에 지원을 가서 다른 업장 체험도 하고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 식품조리와 관련하여 여러 전문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현장경험을 해보니 정말 학교에서 배운 건 밑바탕 다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공, 교육이 큰 목표입니다.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대학생 때의 시간은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활용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 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학생 때가 정말 좋다는 걸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가는 대학생들만 봐도 제가 다 신나고 설레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방학도 길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시간이 참 많습니다.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주어진 시간에 자신을 위해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간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김미지 기자



김금옥 씨



박희수 씨

● 송호신문이 만난 사람

## 캠퍼스 환경도우미 김금옥·박희수 씨

아침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전날 흘린 과자부스러기 하나 없이 말끔히 청소되어 있다. 그 뒤에는 깨끗한 강의실을,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송호대신문이 송호학우들에게 이모로 불리는 김금옥(55세) 박희수(58세)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학교에서 어떤 일은 하고 계시나요?**

(**김금옥**) 학교를 깨끗이 하는 일…가장 신경써서 청소하는 곳은 강의실인데 손주 같은 학생들이 좀 더 깔끔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아니예요.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박희수**) 강의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복도, 바깥 낙엽 쓰는 일도 우리가 하고 있죠.

**일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김금옥**) 즐겁게 일하려고 해요. 학교가 산에 있어 공기도 좋고…운동이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청소를 하려고 화장실이나 강의실에 들어가면 아휴~~ 우리가 봐도 정말 지저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힘들어. 그래도 청소하고 나오면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해.

**송호대 학생들은 어떤가요?**

(**김금옥**) 처음에 입학해서는 어리둥절해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예뻐요. 군대 간다며 인사하고 가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자식처럼 뿌듯한 마음이 들지요.

(**박희수**) 송호대 학생들은 참 착해요. 가끔 “청소 힘드시죠?”하고 음료수를 뽑아다가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고맙지요. 저번엔 한 학생이 코코아를 뽑아다 주는데 마침 과장님이 보시고는 “어~ 네 이름이 뭐니? 난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하면서 칭찬하셨던 적이 있어요. 입학하고 얼마 동안은 적응이 덜 돼서 그런지 까칠하게 보이는데 말 몇 번 나눠보면 인사도 잘하고 순해, 착해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박희수**)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겠어. 여기저기 버려져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청소하기도 어려워. 그런 점 말고는 바라는 점은 없고…학생들이 자격증 시험보고 와서 “저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뿌듯하거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지.

(**김금옥**) 맞아, 다른 거 뭐 바랄게 있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하는 게 바라는 점이지. 우리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우리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다섯 분이다. 최근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이 청소아주머니들을 무시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모~’라고 부르며 살갑게 지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송호대를 정겹고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김미지 기자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생활 정착기

# "송호에서 꿈꾸는 나의 도전"




우리학교에는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아침에는 일터로, 퇴근후에는 다시 수업을 위해 하루 종일 마음과 몸이 바쁜 이들 … 그들 틈에서 뭔가 다르지만 좀처럼 그 다름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눈에 띈다.

"아유, 과제가 너무 많아요!", "00언니, 지난 번 그 식당 진짜 맛있더라." 얼핏 봐서는, 아니 말하는 소리만으로는 다른 이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는 동료들의 말에 환하게 웃는 두 사람. 바로 베트남에서 온 응우 티디엠, 응우엔 티한이 그들이다.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은



◇응우 티디엠

졸업 후엔 저 처럼 다문화 가족을 돕는 다문화 가정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는게 꿈입니다.

/ 인터뷰 / 응우 티디엠 · 응우엔 티한

(사회복지학과 1학년 야간과정)

강인한 여성의 힘으로 언어며, 음식이며, 문화들을 차근차근 익혀갔고, 대학에 입학도 했다.

현재 응우엔 티한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통번역과 자녀 양육 및 한국문화(베트남어) 상담 등 다른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응우 티디엠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슬하에 2남을 두었다.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티디엠** : 집안일과 회사 일에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저녁시간 학교 교문을 들어설 때면 언제나 설레고 의욕이 솟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과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생각에 늘 행복합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사회복지에 대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저의 조그만 바람이라면 저와 비슷한 다문화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의를 최선을 다해 듣고 공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같은 과 학생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정보나 자료를 나누며 공부 할 수 있으며 교수님들의 도움 또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스터디 룸이나 24시 독서실을 마련해 주신다면 더욱 많은 동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입니다.

**티한** : 공부는 재미도 있고 나와 우리 가족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요. 다 이해는 못해도 참 재미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요. 바로 학비인데, 아무래도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려니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있어요. 이런 다문화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비에 대한 지원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인 경우 학사행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물론 정보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지만 아직 한글에 미숙한 부분이 크므로 다문화학생들에게는 별도로 학교 행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란 000 이다.**

**티디엠** : 사회복지사란 사람을 행복하게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란 사람을 사랑하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요람 같은 곳입니다. 사회복지를 배우기 전 저는 그저 남을 도와주는 일이 복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과를 다니면서 클라이언트(도움이 필요한 사람) 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형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티한** : 사회복지과란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과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죠. 저도 사회복지과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티디엠** : 저는 졸업 후엔 다문화 가정 전문 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기위해 다문화가족 상담사 공부를 더 할 것이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결혼이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문화와 정서를 배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당당한 사회복지사의 일원으로 다문화 가정 전문 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느낀 점은?**

**티한** : 송호대는 저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해준 곳입니다.

전 이곳에서 공부하며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막연한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고 어쩌면 막연한 생각만 가진 채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을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준 송호대학교 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응우엔 티한

아직까지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굴복하지 않고 꿈을 키워갔으면…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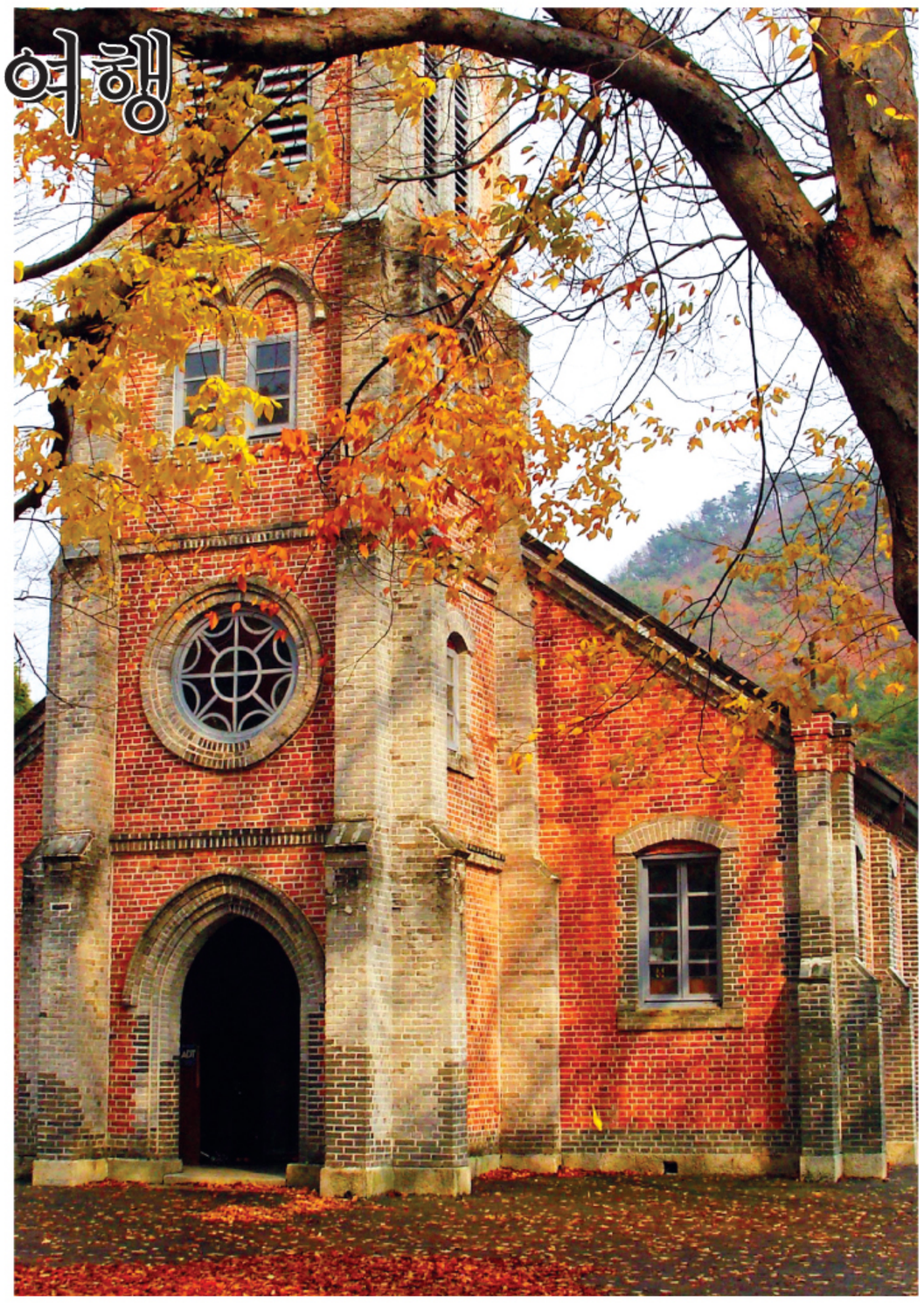
**티디엠** : 공부를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고, 어려운 가운데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내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난 이곳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 고향에 보낼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러한 나의 삶에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티한** : 한국은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말고 꿈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노력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꿈이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합시다!

유동균·김소민 기자

# 풍경과 하나가 된 힐링 여행



## 지역 바로알기: 횡성 풍수원 성당을 찾아서

### 100년의 세월 묵묵히 지켜온 천주교 성지 눈에만 담아두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 성당 안에 들어가니 창과 조명의 아름다움이…

횡성은 작은 규모의 군 단위 지역이지만, 유서 깊은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이 풍부한 곳이다. 송호신문「창」에서는 바쁜 학업으로 볼거리, 누릴 거리, 먹을거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을 우리 송호 학우를 위해 매호마다 횡성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횡성의 유명한 축제를 둘러보았던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횡성의 아름다운 명소, 풍수원 성당을 소개한다. 자! 그러면 함께 떠나보자, 100년전의 시간 여행으로…

풍수원 성당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1001』이라는 책에도 소개된 바 있는 곳으로 횡성 시내에서 약 25분 정도 가면 닿는 유현리에 자리 잡고 있다. 성당이지만 특정 종교인의 성지라 생각하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100년의 세월을 거친 풍수원은 이미 종교나 신앙을 너머 위안과 평안이 필요한 많은 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풍수원(豊水院)'이라는 명칭은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언덕을 올라가면 풍수원 성당 입구가 나온다. 큰 느티나무에 가려져 얼핏 보이는 성당 건물은 인공 건축물이 그러하듯이 과장되어 도드라지지 않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그야말로,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연의 한 풍경처럼 고즈넉하고 경건하며 소박하다.

신발을 벗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과 조명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옛 모습 그대로 성당내부에는 의자가 없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보는 형태였다.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더 경건해졌고, 몸을 단정히 하게 되었다. 100여 년 전 성당을 지을 때의 그 송판 마루 그대로다. 제단을 중심으로 양쪽 6개. 총 12개의 기둥들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열 두명의 사도를 상징한다고 한다. 초기에는 기둥이 나무 기둥이었으나, 현재는 돌기둥으로 바뀌었다. 성당이 처음 지어질 때만 해도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새롭다. 방석을 직접 깔고 앉아보니,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 처음 지어진 성당이고,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옛 모습이 잘 보존된 성당이다. 1801년 신유박해 때 경기도 용인에 살던 40여 명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할 곳을 찾다가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8일 만에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그때부터 박해를 피해 이곳에 더욱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신도들의 간절함을 알 수 있었고, 조상님들이 옛날에 계셨던 이 풍수원 성당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쌀쌀한 날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인 정규하 신부가 이곳으로 부임하면서 건축이 시작되었다. 신자들이 성당을 짓기 위해 직접 나무를 패고 벽돌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도들의 땀과 마음을 쏟아 부은 공사 끝에 1905년 착공, 1907년 준공, 1909년에 성당이 완공되었다.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9호,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 163호로 지정된 풍수원 성당은 고딕 양식의 천주교 성당이다.

100여년 전, 이 깊은 산골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목숨을 무릅쓰고 믿었던 사람들… 성당 마당의 키 큰 느티나무는 40여명의 신도들이 느꼈을 모든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 안았을 것 같았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높이서 굽어보면서 느티나무는 안타깝고 간절한 이들의 기도를 하늘로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러고보니 성당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는 저 느티나무조차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빨간 벽돌로 쌓은 벽과 뾰족한 4층 종탑의 모습이 그림과도 같아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풍수원 성당에서는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열린다. 마을 신자는 여든 명쯤 되지만 평일엔 주로 성지 순례를 온 카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이 찾아오며, 성체현양 대회가 되면 1500명이 넘는 신도들이 풍수원 성당을 찾는다고 한다. 성체현양 대회의 성체란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말을 담고 있으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새기고 생명과 나눔의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이다.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신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이다. 1920년 제1회 성체대회가 실시된 이후 6.25 한국전쟁으로 열리지 못한 3년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이 대회는 지난 5월에는 행사가 90주년을 맞았다.

본 건물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유물 박물관이 있다. 사제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지금은 유물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붉은 벽돌로 세워진 2층 건물은 1912년에 지어진 건물로 벽돌로 만든 사제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가까운 피미기마을이라는 곳에서 벽돌을 구워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이 유물 박물관에는 기도서, 박해일기, 십자가 등 천주교 관련 유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조상이 사용하던 가마, 고무신, 방아 등 일상생활용품들이 전시 되어 있다. 성당 밖으로 나오면 언덕으로 예수 수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처인 '십자가의 길'이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14점의 그림은 판화가 이철수의 작품이다. 십자가의 길 여기저기에는 풍수원 성당에 계셨던 신부님들의 묘도 보인다. 성당은 산 사람들의 소원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바람을 그대로 담아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다보면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바닥에는 묵주의 형태로 돌들이 가지런히 박혀있다. 성당을 나오다보면 신도들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 둘러만 보고 가는 이도 있고, 더러 고개를 수그리고 전시된 농산물을 꼼꼼히 만져보고 들여다보는 손님도 있다. 값을 더 받으려는 장사꾼도 없고, 어떻게든 더 깎아보려는 깍쟁이 손님도 없다. 무인 판매대에서 거래되는 것은 풍수원 성당에서 이미 정화되고 순화되어 나온 방문객들의 허물없는 마음과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단한 여행 끝을 열심히 일궈낸 채소며 곡식으로 채워주려는 이곳 신도들의 믿음과 정성뿐이었다. 나도 무엇인가 고르고 싶었지만, 어떤 것이 유용한지 잘 몰라서 이번엔 일단 구경만 하고 지나갔다. 다음에 꼭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들러 볼 핑계를 하나 더 남기기 위해… 아늑하고 마음 깊은 곳 까지 정화시켜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성당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지치고 힘드셨을 부모님의 일상이 여기에서라면 위로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았다. 더불어 내려오는 길에 시골 인심과 땀이 가득 담긴 무인 판매장을 들러 순수 무공해 건강도 챙기시게 말이다.

한창 힐링(healing)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풍수원을 힐링 여행의 첫 번째 여정으로 정한다면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그저 이 시간을 잘 견디어온 저 오랜 성당과 성당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들… 거기에서면 사람도 그대로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자연이 되고 성스러워 질 것이다. 그렇게 따뜻한 하나가 되는 느낌이 힐링이라면, 제대로 찾은 셈이다.

늦가을의 풍수원을 충분히 만끽하고 내려오는 길, 사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제대로 담지 못했다. 특별히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준 블로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겨울, 눈 덮인 풍수원도 기대된다. 다음엔 꼭, 좋은 사진기를 챙겨가야겠다… 눈에만 담아두기에 풍수원은 너무 아름다웠으므로…

박혜진·서다정 기자

# 설레는 겨울방학, 현명하게 그리고 알차게!

## 송호학우들을 위한 방학 사용설명서

어느새 달력 한 장을 남겨두게 되었다. 12월이 된다는 것은 2013년도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며 또한 긴 겨울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방학 생각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무엇을 하고 지낼지 계획과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어린 시절 방학이 시작되면 동그란 시간표로 일과를 계획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시간표대로 생활한 것이 방학 내내 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송호학우들은 그때의 기억을 거울 삼아, 이제 한층 현명해졌을 것이라 본다. 자, 그럼 송호 학우들이 겨울 방학을 뜻깊고 알차게 보낼 방법들을 찾아보자.

### 외국어랑 친해볼까?

**▶저렴하고 간편하게 어플로 공부하기**

시간도 돈도 만만치 않다면,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공부는 어떨까. 특히 speaking 실력을 키워고 싶다면 영어 어플스피킹 맥스(www.speakingmax.com)를 추천한다.

영어권 국가(뉴욕, 런던, 호주 등)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인터뷰 영상과 미국인 영어선생님들의 패턴 강의를 통해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스피킹맥스'를 통해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도시별, 개인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억양과 발음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스피킹맥스로 현지에서 공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어회화 공부를 실감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공부할 수 있다.

### 실속 있는 자격증 하나 갖추자

**▶사무능력 향상 위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

IT를 기반으로 하는 요즘에는 최소한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과제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 안 해본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MOS 라는 자격증을 추천하고 싶다. MOS 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윈도우 운용체제에 대한 자격증으로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컴퓨터활용능력자격시험도 있으니 전공이나 취업현장에 맞는 것으로 찾아 시도해보자.

이 밖에 한자자격능력시험도 권해본다. 많은 기업에서 입사 시 가산점도 주어지지만, 일상생활에서 고품위 어휘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국가공인은 없으나 한국어문회(www.hanja.re.kr) 시험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대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용돈과 등록금의 많은 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겨울은 경제적 독립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노크해 보는 것도 좋다. 전공 분야에서 특별한 자리가 없을 경우, 대학생들 사이에 '신의 알바'라 불리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자. 비교적 편한 행정 업무와 근무시간, 급여가 보장돼 경쟁률이 높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인(www.albain.co.kr)은 전국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했다. 관심있는 학우들은 지금 바로 클릭!

### 보람은 채우고 마음은 비우고

**▶자원봉사활동**

추운 겨울방학, 이번 방학은 나를 위한 방학이 아닌 남을 위한 방학으로 따뜻하게 보내보는건 어떨까? 보람을 찾는 송호인이라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들어가면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분야별, 지역별, 봉사자유형별로 자신에게 알맞은 곳을 찾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추억에 남을만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714-1365(고객센터)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는 자연과 함께하며 참된 나를 찾고,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는 공간이며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사찰에서의 기본예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맞게 지역과 사찰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다른 여행들과 달리 원한다면 혼자 가는 것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김소민·유동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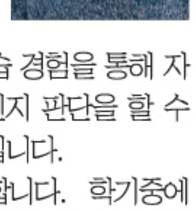




## 소곤소곤, 송호학우들의 방학수다

이제 곧 방학이다. 분명 우리는 각자 이루고 싶은 바람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과연 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관광(대명)리조트과1 박헌국**



저희 관광(대명)리조트학과는 방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홍천 비발디 파크로 40일 동안 실습을 갑니다. 내년 2학년 2학기때 인턴과정을 나가기 전에 미리 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성이 맞는 길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일탈도 계획합니다. 학기중에 많은 공부와 과제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쉬어주고, 다시 재무장해야하니까요.

**보건행정과1 김소이**



전 방학동안 집중적인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에요. 2학년이 되기 전 체력을 길러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 하고 있는데 방학 때 도전하여 꼭 취득할 것입니다. 또 긴 방학 꼭 책 한권은 읽어볼까해요.

**사회복지과1 박병국**



저는 방학동안 평일에는 지금처럼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몇 번이나 동행하게 되었는데 의미 있고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번 방학은 사회복지과 학생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뜻 깊은 방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유아교육1 최다은**



하고 싶은것이 많아요. 시험용 영어가 아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또 매번 미뤘는데 이번 방학엔 꼭 운전면허도 따려고 해요. 그리고 기차여행을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차여행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 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기차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호텔외식조리과1 곽지원**



2014년 1월부터 중식과 일식 자격증 시험이 시작되니 겨울방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식과 일식을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추억도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시절 원했던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